사 설

불교 통일토론에 거는 기대

남북한의 불교도가 함께 하여 통일을 위해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귀한 자리가 열릴 것 같다. 오는 12월 열기로 기본적인 합의를 본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가 그것이다. 남북한 불교계의 대표들이 가끔 접촉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던 남북한 불교계의 접촉이, 이제 토론의 마당으로 열려진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한 걸음 나아간 공개적인 만남, 그것은 남북한 불교가 만나는 새로운 형태를 통하여 서로 조금씩 접근하는 연습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선 그 만남을 원만하게 성취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한의 만남은 그 동안 헤어져 있었던 긴 세월이 길었던 만큼 서로 변한 모습과 생각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예가 많으며, 그로 인하여 서로 어색한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많다. 우선은 그 만남이 진정한 화합의 모습이 되도록 하여, 거기에서 얻어진 화합의 힘이 불교계 변혁과 통일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해야 함은 물론이요, 그 준비는 자기 중심의 아집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열린 자세에 바탕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일단 착실한 준비에 의해 토론회가 화합의 축제로 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앞으로 남북한 불교가 나아갈 기본적인 방향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의 원동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과거로부터 남북한이 함께 지닌 문화적 토대, 그 가운데 불교 문화의 유산을 통해 남북한이 하나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할 수도 있다. 또한 불교 정신을 통해 민족의 화합된 앞날을 제시하고, 그러한 앞날을 이루기 위해 불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급한 기대는 뒤로 돌려도 좋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민족 분단의 큰 고통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 불교가 함께 머리를 맞대게 된다는 점이다. 다만, 남북한 불교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여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야 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문화재 수사전담반 서두르라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비지정 문화재도 극심한 수난을 겪고 있다. 문화재 지정의 가치 여부와 그 지정 과정에 어려움이 많아 아직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어도 절도범들에게 있어서는 비지정문화재도 표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특히 성보문화재는 언제나 대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범인들의 좋은 표적이 되고 있다.

성보문화재는 불교의 재산이며 동시에 민족의 얼과 긍지가 스며있는 나라의 재산이다. 이것이 한낱 '상품'으로 외국으로 몰래 팔려나간다는 사실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며 수치인 것이다.

정부에서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 지난 8월26일 개정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확고한 의지를 엿보게 하는 조치다. 종단에서도 성보문화재 관리에 대한 각별한 지침이 시달되기는 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보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일차적인 책임은 뭐니뭐니해도 해당 사찰 주지에게 있다. 보다 각별한 관리의지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치안당국의 문화재 도난사건의 해결 의지다. 문화재도난범죄는 점점 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사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수사당국과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더 한층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6일 송광사에서 열린 호남지역 6개 교구본말사 주지연수회에 참석한 160여명의 스님들이 정부에 '문화재사범 수사전담반' 설치를 결의문을 통해 촉구하고 나선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결의문은 문화재 도난사범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도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같은 기구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월7일 경북지방경찰청이 지역문화재보호를 위해 지방청단위로는 처음으로 '문화재 수사대'를 발족시킨 것은 타산지석의 발빠른 행보로 여겨진다. 검경의 문화재사범 전담반은 마약사범 전담반 못지않게 절실하게 필요한 기구다.

문화재는 복원할 수도 없고 쉽게 찾을 수도 없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다. 이를 지키고 되찾는 일은 이제 국가적 책무가 되어 마땅하다. '문화재사범 수사전담반'의 설치를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 '어린이 법요집' 나왔다

법회식순 · 교리 등 표준화…새싹포교 새전기

대불어 14일 출판기념회

어린이 법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순을 중심으로 의식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최초의 〈어린이법요집〉이 나왔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덕진)는 14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어린이 법요집〉 출판기념 법회를 갖는다. 이번 〈어린이 법요집〉 출판으로 어린이 법회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게 돼 어린이포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관련기사 3면〉

〈어린이 법요집〉은 통일된 법회식순과 불교 교리, 부처님 일대기, 불교역사, 사찰예절, 찬불가 불교상식 등 삽화와 사진을 곁들여 입체적으로 설명,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은 물론 이해가 쉽도록 짜임새 있게 엮어져 있다.

창립 14주년을 맞이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가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불국토 연구소, 임원 스님들의 감수를 받아 완성한 〈어린이 법요집〉은 조계종 공식 어린이 법요집으로 전국에 보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어린이 법요집〉에는 신도 오계 대신 어린이 법회에서 이미 일반화된 어린이 오계인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스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로 통일하는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평가다.

대불어회장 덕진스님은 "어린이포교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포교자료의 부실에 있다"며 "통일된 법요집 사용으로 어린이 법회간의 원활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새싹 불자들이 성장했을 경우 초래될 혼선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불어는 또한 연내에 〈어린이 법회 지침서〉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법회 지침서〉는 대불어의 14년 동안의 어린이 포교 경륜과 자료가 담겨있어 처음 어린이 법회를 열고자 하는 사찰, 스님, 지도교사들에게 어린이 법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지침서에는 법회의 시작, 법회내용, 법회 활성화 방안, 어린이 신행프로그램 등 어린이 법회와 포교에 대한 지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어서 더욱 기대가 크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정대스님-김한길 문화장관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5일 신임인사차 총무원을 방문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과 환담했다.

정대스님은 "조계종이 소란스러우면 민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조계종단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불교계 어른들의 말씀을 받들어 열심히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윤 기자

홈페이지 싸고 종단 갈등

조계종 "태고넷 종단사등 역사왜곡" 지적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에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종단사 서술을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갈등의 진원지는 지난 9월 말 개설한 태고종 홈페이지(taegonet.com). 이 홈페이지는 종조 보우국사, 한국불교 법맥, 태고종 종단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계종은 "태고종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의 대부분이 조계종을 폄하·비난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문제삼았다.

조계종이 주로 문제삼고 있는 내용은 "태고보우국사의 법손으로 살다가 이후 보조국사로 조상이 바뀌며 힘의 논리가 정당화하고 있으나 태고종은 정통법통을 이어가고 있다" "세칭 비구승(현 조계종)이 종헌을 무시하고 벌개의 종단을 구성하고 태고사(현 조계사)를 폭력적으로 점유" "태고종은 … 종권의 다툼이나 사찰 점유를 놓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다분히 조계종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고종은 "조계종에서 공문으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해오면 검토하겠다. 그러나 태고종과 한국불교사의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정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성윤 기자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고산스님 통영 무차법회

초발심 회복과 민족통일을 위한 통영 및 도서지역 무차화합대법회가 2일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조계종 제13교구 본말사연합회(회장 통광) 주최로 열렸다.

'초발심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고산스님은 "본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품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초발심이기에, 무슨 일을 할 때 처음 먹었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립 이후 뚜렷한 활동이 없던 통영사암연합회(회장 선곡)의 재창립 계기가 되기도 한 이날 법회에는 보광 해인사 주지, 통광 쌍계사 주지과 김기재 새천년 민주당 연등회 회장, 고동주 통영시장을 비롯 1천 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통영=천미희 기자

문화부 종무관 김종오씨

김 한 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6일 종무관(국장급)에 김종오 종합예술학교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김 종무관은 문화정책국 조사과장, 종무1, 2과장, 관광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주사대부고, 명지대 행정학과 졸. 정성윤 기자

11월26일 포교사 고시

제6회 포교사고시가 11월 26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미국LA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포교활성화를 통한 종단및 불교발전에 기여하고자 불교적 소양과 전문적 포교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는 포교사고시 응시원서를 9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 문의 (02) 737~7588.

김원우 기자

"산중사찰도 문화공간 갖추자"

효림스님 금강산 선상강연서 주장

"디지털 시대의 사찰은 도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색 주장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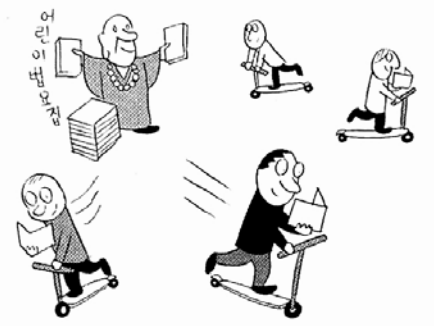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효림스님은 3~6일 금강산에서 진행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정진도량 일정 가운데 '인터넷과 불교'를 주제로 한 선상 강연에서 "이제 사찰은 단순히 참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효림스님은 문화적인 욕구가 강한 디지털 세대를 위해 사찰이 전통찻집, 화랑,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갖추고 테마전, 문화공연, 다도 강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이 여가를 이용해 산중으로 찾아오도록 포교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디지털문명이 불교의 사상과 부합한다고 전제한 효림스님은 "총무원과 전국 본말사의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종무행정의 신속성과 종단 및 사찰경영의 투명성에 제고되고 전 종도가 참여하는 종단운영이 가능할 것이란게 스님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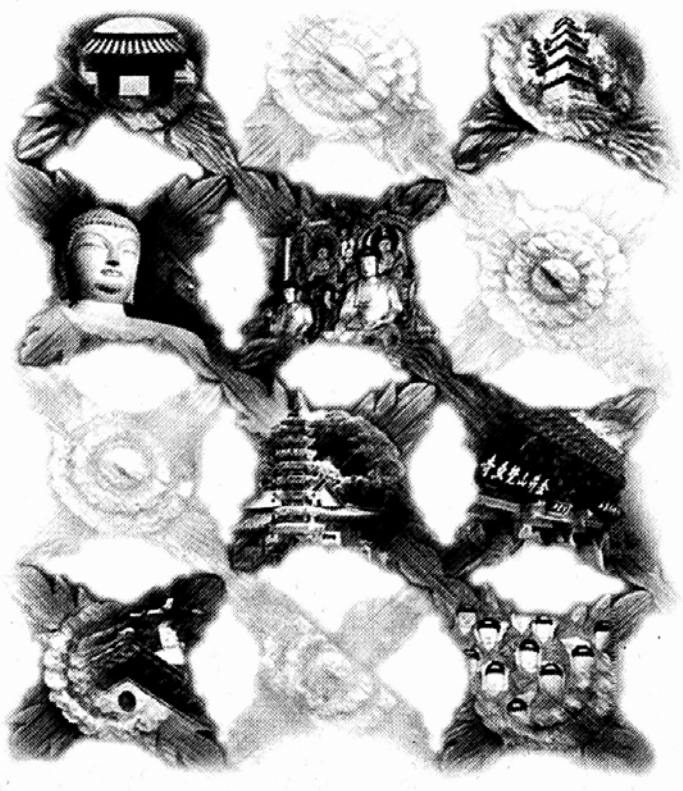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현 대 만 평 박구원



바르게 배워서…

현대불교창간6주년 6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6주년을 축하합니다

새천년 불국정토를 위해
2000만 불교도와 함께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大韓佛教曹溪宗